

메타언어적 '대조성'을 고려한 프랑스어 문법교육

이경수
(서울대학교)

Lee, Kyeong-Soo. (2007). L'enseignement de la grammaire française basé sur la contrastivité métalinguistique.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0, 87-94.

Quand on apprend une langue étrangère, il est reconnu que le système de la langue maternelle constitue toujours pour l'apprenant de langue étrangère un point de repère fondamental. Cela signifie que lors de l'enseignement d'une langue étrangère, il faut tenir compte de ce qui existe déjà chez l'apprenant, à savoir la langue maternelle, et y superposer une nouvelle pratique et connaissances. Aussi, compte tenu de l'importance de la langue maternelle, cette étude consiste à proposer l'enseignement de la grammaire française pour des apprenants coréens portant sur la contrastivité métalinguistique entre le français et le coréen. Pour ce faire, notre intérêt est centré sur les termes grammaticaux qui ne constituent qu'une partie du métalangage grammatical. En particulier, nous prenons ici pour exemple le complément d'objet indirect qui est très révélateur de cette différence entre la terminologie grammaticale coréenne et celle française. Ce qui va montrer la nécessité de tenir compte des différences métalinguistiques commençant par la terminologie grammaticale pour renouveler les descriptions grammaticales déjà existantes.

1. 들어가는 말
 2. 문제제기
 3. 문법 용어(terme grammatical)
 - 3.1. 프랑스어에서의 간접목적(보)어
 - 3.2. 한국어에서의 간접목적(보)어
 - 3.3. 한국 학습자들에게 있어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
 4. 메타언어적 대조성의 도입 필요성
 5. 맺는 말
- 참고 문헌

1. 들어가는 말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의 항상 기본적인 판단이나 학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일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를 교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 즉,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에 새로운 지식이나 항목들을 어떻게 입력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외국어의 학습이 모국어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어찌 보면 외국어 교육에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도 오래된 생각이 학문적으로 체계화 된 것이 바로 1950년대에 R. Lado¹⁾를 위시한 언어학자들에 의해 구체화된 ‘대조 언어학’(linguistique contrastive)이다.

물론, 대조언어학이 내세웠던 이론적 배경²⁾이나 방법론의 문제점들을 고려해볼 때, 오늘 날 비교언어학의 이론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지식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습득해가는 과정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비교설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외국어 수업 시간에 늘 빠지지 않는 고정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비교설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메타언어³⁾ 차원의 기술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메타언어의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 문법 용어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이에 존재하는 메타언어의 대조적 측면을 고려한 프랑스어 문법 설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1) R. Lado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H. Besse et R. Porquier (1991)에서 재인용.
- 2) 당시 대조언어학의 근간을 이룬 이론적 배경으로는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linguistique structurale)과 행동주의 심리학(psychologie behavioriste)을 들 수 있다. 본 논의가 이 두 가지 이론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H. Besse et R. Porquier(1991), 이경수(2007)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메타언어(métalangue)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R. Tomassone(1995)은 자연언어 속에서 그 언어 자체에 대해 말하는 언어의 하위 체계로 정의하고, H. Besse(1980)는 여기에 덧붙여 언어 자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capacité)까지도 지칭하는, 이른바 métalangage의 용어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논의에서는 언어 자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를 지칭하는, 주로 첫 번째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주로 동사, 명사, 문장 등의 문법 용어(termes grammaticaux) 개념들에만 국한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제제기

우선, 본 논의에서 왜 문법 용어의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하는지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한국 학생들이 “그가 나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프랑스어로 작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경수(2007)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답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⁴⁾.

Q) 그가 나의(내) 생명을 구했다.

→ ① Il a sauvé ma vie. (= He saved my life.) (47/50)

→ ② Il m'a sauvé la vie. (= *He saved me the life.) (3/50)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두 문장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혀 손색없는 프랑스어 표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선호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 학습자들이 ②번(3/50명)의 문장 대신 ①번(47/50명)의 문장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모국어, 즉 한국어의 영향일 것이다⁵⁾. 즉, 한국어의 동일한 구조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①번의 문장 형태로 답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구조적 차원의 간섭현상(interférence)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는 관점에 대체로 동의할 경우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동등 표현이면서도 실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는 ②번의 문장에 대해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보완할 방법을 제시해줌으로써 그들이 동일 상황에서 ②번의 문장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프랑스어 문법에서 이 문장은 간접목적보어⁶⁾와 함께 사용된 정관사의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프랑스어의 특수한 구문들 중의 하나이다. Y. Delatour *et al.* (1991)는 이 용법에 대한 설명을 “프랑스어에서 신체부위와 관련된 명사의 소유자가 간목으로 표현될 경우, 소유형용사를 대신해서 정관사가 사용된다”⁷⁾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주로 정관사의

4) 이 결과는 이경수(2007)에서 서울 소재의 두 개 대학(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불어 교육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중 한 문항의 결과이다.

5) 혹은 한국에서 영어교육이 제2외국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해당 영어구문의 원인도 일부 있으리라 사료된다.

6) 프랑스어의 Complément d'objet indirect를 번역한 것으로, 흔히 간목이나, 간접목적어 등의 약어로 불린다.

7) "L'article défini s'emploie devant les noms des parties du corps à la place de l'adjectif possessif

용법에 초점에 맞춰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명사화’(pronominalisation)의 결과로 나타나는 간목⁸⁾의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주로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에서의 차이점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한국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간단히 짚어보고자 한다.

III. 문법 용어(terme grammatical)

문법 용어는 여타의 학문들, 예를 들어, 수학, 화학, 물리학 등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들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전문용어들에 비해 문법 용어만이 가지는 특징을 한 가지 들자면, 그것이 언어(langue)를 기술(description)하고자 하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J.-P. Leduc-Adine(1980 : 7)가 주장하듯이, 일상 언어(langage ordinaire)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인 반면, 문법 용어는 “언어라는 좀 더 특정한 대상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일련의 용어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단어, 명사, 동사, 문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간접목적(보)어의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자.

1. 프랑스어에서의 간접목적(보)어

앞선 예(② Il m'a sauvé la vie)에서 문제시되는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me') 용법을 살펴보기 위해 그 정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자. 프랑스어에서 간접목적(보)어는 전치사로 도입되는 동사의 목적보어(compléments d'objet)들 중의 한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 없이 도입되는 직접목적보어(complément d'objet direct)와는 달리 전치사로 연결된 동사의 보어로서, 이를 도입하는 전치사는 'à'나 'de'가 일반적이다. 아래 밑줄 친 부분의 예들이 간접목적(보)어에 해당된다.

1) Marie téléphone à Paul. → Marie lui téléphone.

[...] lorsque le possesseur est indiqué par le pronom indirect. ex. Il m'a pris la main." (Ibid.: 110).

8) 여기서 ‘일반적인 대명사화’란 'à qqn'이 'lui/leur' 등의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예. Je téléphone à Paul. → Je lui téléphone). 좀 더 자세한 사항은 4. 메타언어적 대조성의 도입 필요성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2) Marie donne de l'argent à Paul. → Marie lui donne de l'argent.

3) Marie profite de cette occasion. → Marie en profite.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는 전치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도입되는 동사의 보어로서 문장의 필수성분을 이룬다. 따라서 이를 문장에서 생략하면 다음과 같이 틀린 문장이 된다.

4) *Marie profite. / cf. Marie profite de cette occasion. / Marie en profite.

2. 한국어에서의 간접목적(보)어

프랑스어에서의 간목적은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성분인데 비해, 한국어 문법에서는 그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남기심, 고영근(1998)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목적어'가 존재하는데, 이는 목적격 조사인 '-을/-를'과 결합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문장의 필수성분을 구성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아래 예문 5). 바꿔 말하면, 한국어에는 직접과 간접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직접)목적어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로 'à qqn'의 형태로 나타나는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는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의 어떤 성분으로 간주되는가? 위의 1), 2)번 문장의 아래 한국어 번역(1'와 2')을 보면, 이들이 한국어에서는 처소격 조사 '-에게'가 붙은 일종의 부사구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5) 마리가 책을 본다.

1') 마리가 뿔에게 전화한다. / cf. 마리가 뿔에게 간다.

2') 마리가 뿔에게 돈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어 문법에서 처소격 조사 '-에게'가 붙은 부사구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예문 1'와 2'에서 '뿔에게'라는 부분이 물론 생략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⁹⁾, 문제는 문맥이나 의미상으로 '뿔에게'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제될 경우에만 그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이 문장 성분('뿔에게')을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의 임의(facultatif) 성분인 부사구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국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러한 문장성분들을 일종의 '필

9) 1') 마리가 전화한다. / 2') 마리가 돈을 준다.

수적인'(essentiel) 부사구¹⁰)로 정의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프랑스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통용되는 문법 용어들 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한국어에서는 그 존재 여부를 비롯하여 프랑스어에서와는 전혀 다른 문장 성분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년간에 걸쳐 프랑스어 문법을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문법책들을 보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간목적 개념을 단지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은 ②번의 문장(II m'a sauvé la vie)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은 앞선 설문 결과(3/50명)보다는 훨씬 적어야 한다고 여겨지 때문이다.

3. 한국 학습자들에게 있어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목적(보)어에 있어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많은 수의 한국 학습자들이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를 일부의 구문들에 국한된 협소한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경수(2007)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 학습자들이 프랑스의 간목적 'à qqn'의 형태이거나 혹은(게다가) 한국어에서 '-에게'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¹¹). 그 결과, 일반적으로 '-에게'로 해석되는 프랑스어의 'à qqn' 형태만을 간접목적보어 대명사(me, te, lui, nous, vous, leur)로 전환시키고, 이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간접목적보어를 대명사화 할 경우에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6) Il a sauvé la vie de Paul. → *Il a sauvé la vie de lui.

→ cf. Il lui a sauvé la vie.

10) 이를테면, 프랑스어의 Marie va à l'école.의 문장에서 'à l'école'은 문법 용어상으로는 상황보어(complément circonstanciel)이면서도 생략이 불가능한 문장의 필수성분에 해당하는 경우(Cf. *Marie va)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1) 많은 수의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이유로는 영어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에 간접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2외국어들 중의 하나로서 배우게 되는 프랑스어 문법 시간에 간목적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교수자들은 주로 영어에 존재하는 간목적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예들도 일부 수여동사(donner, offrir,...)에만 국한시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IV. 메타언어적 대조성의 도입 필요성

이상과 같이, 간접목적보어에 있어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3.1.과 3.2.)과 한국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프랑스어에서의 간접목적보어의 개념(3.3.)을 엄두에 두고, 우리가 앞서 예로 들었던 ②번 문장(*Il m'a sauvé la vie*)으로 되돌아가 보자.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한국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어의 간접목적보어 개념만으로는 간접목적보어 대명사인 'me'의 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왜냐 하면, 이 문장에서 'me'는 '-에게'로 번역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à qqn'의 형태를 대신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비록 비문이긴 하지만, 대명사화되기 전 단계를 상정한다면, **Il a sauvé la vie de moi.* → *Il m'a sauvé la vie.*의 경우처럼 'de qqn'의 형태가 'me'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프랑스어 문법 자체에서도 이른바 '부분의 여격'(datif partitif) 등의 용어로 따로 지칭되는 간접목적보어의 이러한 특수 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프랑스어 문법책에서 이 용법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거나, 주로 정관사의 용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간접목적보어에 대한 오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 원인이 '부분의 여격'이라는 프랑스어 용법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든지, 혹은 한국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기인한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언어 간에 문법 용어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교설명들은 이러한 메타언어적 차이를 고려치 않고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문법용어의 차이를 더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국 학습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프랑스어 학습의 문제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어와 프랑스어 사이에 존재하는 문법 용어의 대조성을 고려한 문법 설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V. 맺는 말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요즘 프랑스어 교육학에서 의사소통 교수법(*approches communicatives*)이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법교육이 차

지하는 부분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이는 프랑스어 수업 시간에 문법을 가르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르치되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의 차원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비교설명이 학습자가 외국어를 습득해 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국어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는 문법 용어, 좀 더 넓게는 메타언어 차원의 대조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비교설명들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문법 용어가 메타언어의 일부라는 점에서, 이러한 대조적인 측면을 출발점으로 하여 메타언어적 대조성에 근거한 프랑스어 문법 설명들을 찾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기심, 고영근, 1998,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이경수, 2007, “Vers une grammaire pédagogique française pour apprenants coréens basée sur la contrastivité linguistique et métalinguistique“, Paris 3대학 박사학위논문.
- BESSE H. 1980, “Métalangages et apprentissage d'une langue étrangère, *Langue française* 47, pp. 102-108.
- BESSE H. et PORQUIER R. 1991, *Grammaire et didactique des langues*, Paris, Hatier/Didier.
- DELATOUR Y. et al. 1991, *Grammaire du français, cours de civilisation française de la Sorbonne*, Paris, Hachette.
- TOMASSONE, R. 1995, “Quelques remarques sur l'usage et le non-usage de la terminologie grammaticale en France“, *Travaux de linguistique* 31, pp. 131-144.